

여름

빛나는 산과 바다,
태동하는 생명

다도해의 여름, 세토나йка이(瀬戸内海)국립공원 (1)
북알프스 시로우마다케(白馬岳) 산정 부근에 펼쳐진
꽃의 웅단, 주부 산악(中部山岳)국립공원 (2)



습원을 흐르는 구시로(釧路)강, 구시로 습원(釧路湿原) 국립공원 (3)



산호의 바다에 떠 있는 야에야마(八重山)의 섬들,
이리오모테이시가키(西表石垣) 국립공원 (4)



아사히(朝日)연봉 주능선의 꽃밭,
반다이아사히(磐梯朝日) 국립공원 (5)

COLUMN

천상의 낙원 '꽃밭'

여름은 등산의 계절. 중부 이북의 산에서 꽃밭과의 만남은 등산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산길을 계속 올라가면 마침내 삼림이 사라지고, 눈 앞에는形形色색의 고산식물이 카펫처럼 펼쳐진 꽃밭이 나타납니다. 저온, 강풍, 오랜 동안 쌓인 눈 등 고산지대의 혹심한 환경조건에 적응하면서 살아 가는 고산식물은 대부분 여름의 한정된 기간에 일제히 꽃을 피웁니다. 가혹한 자연 속에서 씩씩하게 살아 가는 모습은 등 산객의 기억에 새겨져 지울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금낭화(양귀비과 식물)

(사진: 1) 高橋毅 2, 3, 4) 森田敏隆 5) 佐竹伸一

가을

가을이 맑은 위편에서
바람의 숨소리를
들린다

단풍이 든 연못에서 바라보는 아사히다케(旭岳),
다이세쓰잔(大雪山)국립공원 (1)



세토우치(瀬戸内)의 가을 석양,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국립공원 (2)



'가을색으로 변한 풀밭'과 잎갈나무 숲,
닛코(日光)국립공원 (3)

단풍과 류즈(龍頭)폭포, 닛코(日光)국립공원 (4)



COLUMN

단풍을 찾아서

낙엽 활엽수림이 많고 그 수종이 다양한 일본은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풍나무, 계수나무, 마가목 등 다양한 낙엽수가 미묘하게 변화하는 주홍색이나 노랑색으로 가을 산을 물들어 갑니다. 단풍의 색깔은 기온의 차이와 수질환경 등에 의해 좌우되며, 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해마다 다릅니다. 1,000년 전부터 일본사람들은 단풍을 찾아 들과 산으로 나왔습니다. 도와다(十和田)호 오이라세(奥入瀬)계류와 오쿠닛코(奥日光)등에서는 가을 단풍철이 일년 중 가장 방문객이 많은 시즌입니다.

